

원수벌과 더불어 영원한 승리의 7.27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대가 바뀌고 산천도 변했지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권을 영예롭게 수호한 전승의 기적은 세기와 더불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 있다.

전승절을 맞이한 조국의 하늘에 람홍색공화기가 펨럭이고 사람들은 기쁨에 휩싸여 전승광장으로 향하고 세대와 세대간에는 전승의 무한담과 격찬의 이야기들이 오갔다.

전승의 역사를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전승절을 성대히 경축한다. 전승의 그날 열병광장을 누벼간 로병들이 평양에 모여 사람들의 열렬한 축하속에 전승절의 축배를 들고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등 온 나라가 흥성이었다.

7.27은 회세의 천출명장들의 전승업적과 선군경도업적으로 빛나는 전승절,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성을 상징하는 영원한 승리의 명절이다.

동사방을 둘러보면 남다른 무애와 공적으로 동경과 찬사를 받으며 세상사람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명장들이 많다. 담력과 배양으로 유명하기도 있고 용맹으로 소문을 낸 장군도 있으며 지략과 평균술로 명성을 날린 군사기도 있다.

하나 그 어느 명장들의 전기를 펼쳐보아도 김일성대원수님과 같이 뛰어난 지략과 평균술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인류의 반제자주위업실현에 특별한 공헌을 한 만인이 공인하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백전노장은 찾아볼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청소한 정군군

을 이끄시어 미국과 그를 피수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당한것은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전승신화이다.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이다.

조선전쟁에는 미국과 영국에서만도 트루먼, 아이젠하워, 이든, 처칠, 델레스, 맥아더, 레이러 등 국가수뇌들과 한다 하는 거물, 전쟁상인들이 다 동원되었다. 때문에 세계는 조선전쟁발발시 미국의 호인장단에 조선의 운명이 72시간내에 결판나게 된다고 속단했다. 그러나 깨어진 꿈, 깨어진 신화와 함께 그들의 운명은 파면과적으로 끝나갔다. 주동적인 반공적전략, 현대포위전의 전형창조, 강력한 직후 제2전선형성, 적극적인 진지방어진 등 수령님의 탁월하고 독창적인 전법과 전술에 의해 미군과 다국적부력은 삼대 쓰러지듯 괴멸되고 드디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던것이다.

위인은 시대가 알고 역사가 기록한다.

보르뚜갈고군 참모장으로서 조선전쟁에 참가한 김소스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은 미국편에 선 서방나라들의 참모장들, 군장성들이 모여 만든것이었다. 그런데 김일성장군이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반도에 없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고 위대한 명장이시라는것을 잘 알게 되었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했다. 미국의 한 언론은 《김일성주석은 트루먼으로부터 클린톤에 이르기까지 10명의 미국대통령들을 모두 이긴 대장군》이라고 전했다.

한성 제국주의강적과 맞서 싸우신 수령님은 국력도 총대에서 나오오 민족적자부심도 총대에서 나온다는 역사의 진리를 실천으로 증명하신 불세출의 명장, 20세기의

전설적명장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전승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경도에 의해 련전전승의 력사로 길이 이어졌다. 주체의 선군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선군의 길에 나서신 장군님께서는 수심상상 나라의 군력강화와 조국수호를 위해 온갖 사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공화국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말 불패의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강화하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전승에로 이끄셨으며 우리 나라를 그 어떤 외세강도, 강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그이의 업적을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에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련장들의 각축전장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고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오늘 경이적인 사변에 대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그것은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의 기치 높이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확인하셨다.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신 세계적명장, 공화국을 세계적군사강국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선군대양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전승의 력사는 오늘도 길이 빛나고있다.

군복을 입으신 그이의 모습에서 장군님께서선 선군승리의 패일을 내다보셨고 김정은원수님께서선 총대로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실 굳은 맹세를 다지시었다.

전승의 력사가 력력히 깃든 관문점을 찾으시고 미제와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놀래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을 대대로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는 전승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가시려는 결연한 선군의지가 어려웠는것이다.

전승의 아침이 밝아오던 1953년 2월 7일 우리 조국과 인민은 세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며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최대로 빛내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삼가 드리셨었다.

그때로부터 59년이 지난 2012년 7월 수령님 그대로이시고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시었다. 그 찬란한 원수별은 내 조국을 밝히고 행성을 밝히는 태양의 빛이고 미제를 풍적적파멸에로 몰아넣으며 제2의 6.25일시대를 부르는 백승의 기치이다.

조선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7.27과 더불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앞으로도 길이 빛날것이다.

찬란한 원수별과 더불어 우리 조국은 영원히 승리의 력사를 새겨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간다. —전승혁명사적관에서—

그이의 모습 리발소에서

지난 5.1절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산간벽촌에 위치한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노동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해 꾸러진 수영장과 체육관, 탁구장, 목욕탕을 비롯한 체육 및 문화후생 시설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리발실에도 들

리시었다. 리발실에 있는 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잘 꾸러지고, 리발을 하고싶은 생각이 든다고, 내가 공장들에 다니다가 여기 와서 리발을 해도 일없는가고, 누가 깎아줄수 있겠는가고 말을 건네시었다. 그이의 유쾌한 물으심

에 리발사들은 저마다 제가 깎아드리겠다고 대답을 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러면 내가 이 동무들에게 머리깎는것을 맡겨볼가라고 하시며 오뎡하게 웃으시었다. 그이의 말씀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봉사자들은 아쉬움속에 그이와 헤어졌다.

리발소에서... 그이께서는 리발실에 있는 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잘 꾸러지고, 리발을 하고싶은 생각이 든다고, 내가 공장들에 다니다가 여기 와서 리발을 해도 일없는가고, 누가 깎아줄수 있겠는가고 말을 건네시었다. 그이의 유쾌한 물으심에 리발사들은 저마다 제가 깎아드리겠다고 대답을 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러면 내가 이 동무들에게 머리깎는것을 맡겨볼가라고 하시며 오뎡하게 웃으시었다. 그이의 말씀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봉사자들은 아쉬움속에 그이와 헤어졌다.

7.27에 즈음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에 즈음하여 캄보자신문이 특집하였다. 캄보자신문 《인민》 12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열병대오에 답례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김일성,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조선인민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선인민의 승리는

김일성주석의 비범한 평균술과 주체적인 군사전법을 메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석께서는 독창적인 전법들을 내용으로써 인민군대가 전투마다에서 적들을 격멸하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게 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군대와 인민의 각지에서 경축대회와 집회를 열고 그에게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원수칭호를 수여한것은 그이에 대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경모의 분출이다. 비범한 자질과 출중한 명도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시고 민족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는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에서 자기들의 생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띠고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무릇 일인자 만인지상(한사람의 아배, 만사람의 우)이라는 말이 있다. 일찍부터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길에서 김일성장군님과 함께 계셨고 오늘날 애국헌신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절세의 애국자의 위인상을 때부로 절감하고있다. 남조선인 리네 트린 신문

《자주민주》가 북에서 후계자는 하루아침에 되는것이 아니며 정적도덕적자질과 능력, 상성업과 경험된 인민의 아들이어야 한다고 한것처럼, 김일성대원수님도 북에서 권력을 계승하는것이 아니라 김일성주석으로부터 시작하여 김일성국방위원장으로 이어온 혁명의 계승이라고 한것처럼 김정은원수님에 의

천 만 이 하나

한 령도의 계승은 단순한 령도적지위의 계승이 아니라 명실공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위업의 계승이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평균술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였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정력적인 헌지지도로 이 땅에 강성국가를 건설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방선마다에 그리고 공방과 발전속, 건설장소

로부터 인민의 유원지, 과학교육문화전당들과 주력지들, 상성업강사시들들과 경영업생산기지들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리상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의 령도의 자욱이 새겨지고있다. 한치의 드림이 없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걸으시는 그이의 령도

적품모에서 천만사람들은 매혹과 흥미를 금치 못하며 일심일체로 그이의 뜻을 받들고 따르고있다. 오늘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 바쳐가는 애국충정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예술을 비롯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 능동한 해박한 자질과 출중한 령도실력을 겸비한 위인형의 령도자에 대한 열화같은 숭배와 흥미의 발원이다. 현실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

체로 이룬 조선의 참모습을 공경하게 평한다. 중국의 출판물 《환구시보》는 조선이 령장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와 자주권을 수호하고있는것은 령도자와 인민의 단결력이 강함때 있다고 전했다. 지난 태양절을 맞으며 열린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뉴욕공동사진전시회를 보

연히 일떠선 공화국의 모습을 체현한 정기력, 유태영채미동모들은 북부동모들의 혼연일체는 그 어떤 대단한 추호도, 목표도, 신기무 같은 것도, 환상도 아니고 력사적현실이다. 최고지도자로부터 당과 국가의 일군들과 대중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고 있음을 현실로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공화국의 실상에 대해 《체제불안정》이요, 《제도불공》이요 하는것은 사상과 리념, 체제와 제도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이 체제화된 반공화국세력의 편견과 외국에 불과하다.

부인하건대 절세의 애국자, 회세의 천출위인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천만이 하나가 된 조선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하거나 가리울수도, 건드릴수도 없는 불패의 힘이 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뿌리를 둔 집민의 확고부동하고 공고한 일심단결, 혼연일체는 애국적위업실현의 천하지대본이다. 본사기자 리 실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

스위스단체 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것을 축하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가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것을 축하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가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것을 축하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가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것을 축하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가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를 드린 크나큰 기쁨을 안고 머지 않아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인 7월 27일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인민은 1950—1953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가장 치열하였던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전조선반도를 타고났으며 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령도하에 승리하여 이룩고계시다. 김일성대원수, 김정일대원수 그대로서는 김정은원수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다. 사회주의 조선은 김정은원수의 령도밑에 미제와 온갖 적대세력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과 령도를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것과 관련하여 프랑스조선친선협회와 1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했다.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가 수여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을 축하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가 1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했다.

스웨리에인사 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것을 축하하여 19일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가 수여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을 축하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가 1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했다.

결정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의 전제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절대적인 지지의 표시로 된다. 이것은 또한 그이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조선인민의 철석같은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협회는 조선인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김정은동지의 령도하에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때없이 남부르소, 천출만충의 사람들이 《물우에 뜬 박물관》을 찾곤 한다. 전승의 7.27전야에는 가슴가슴에 영예로운 공군의 훈배를 가득 드려온 로병들을 비롯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평양의 대동강에 훑물스러운 팔불출을 한채로 떠있는 세상이다. 이는 《푸에블로》호다. 세계가 죽가마뚤듯 했던 미국무장간첩선나포사건이 막을 내린지도 오랜 수십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폐자의 증견인이 되어 당시의 사건전말을 방불히 전하고있다.

기억도 생생한 마흔네해전 민간해양연구선의 외포를 쓰시고 우리 나라 평해를 불범 침범한 《푸에블로》호는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해 나포됐다. 그런데 미국은 적반하장적으로 《인산폭격식》, 《원자탄사용설》을 운운하며 복조선을 《보복》하겠다고 위협공격했다. 다치면 터질듯 한 일촉즉발의 행패만 조미대결상황에 기겁해 일부 외부세력들은 자기 체면을 다 잃고 《푸에블로》호를 돌려주면이 좋을것이라며 분노없이 미국의 중재자로 나섰다. 그러나 조선은 그 누구의 중재에도, 그 어떤 정치, 군

사, 외교적압력과 전횡공세에도 응지부동이었다. 김일성주석께서 명백하고도 단호하게 선언하셨던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호락호락 놓이지 않겠다. 정신이 덜 든 그들에게 다시한번 본래를 보여줄것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국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항할것이다. 각일각 전쟁위기가 감도는 초긴장의 시기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내리신 결심도 여척불변이었다. 미제가 항복서를 내기전에는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는것,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으로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주지 않겠다는것, 먼 후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미제침략자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다는것이였다. 력사적전실은 청사가 길이 남는다. 미국신문 《푸에블로 치프린》은 《푸에블로》호가 북조선에 나포된것은 미해군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합선나포사건으로서 미국에 있어서 수소탄포해와 같을것이다. 나포된 선원들은 두손을 번쩍 쳐들고 북조선 땅을 걸었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1968년을 가리켜 가장 엄혹한 해라고 했다. 오만방자하게 놀다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은 미국의 무분별과 파렴치성의 비참한 말로를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 《푸에블로》호다. 조선의 본래와 침략세력의 쓰디쓴 패배를 만천하에 보여 주는 전리품은 세월을 이여 승자와 패자의 력사를 보여주고있다. 체스조잡지 《오브차스니꼬》는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은 조미대결의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21세기에 계속되는 조미대결의 상미대결의 력사는 곧 조선의 련전전승, 미국의 련전전패의 력사임을 실감하고있다고 전했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미국의 운명은 《푸에블로》호의 운명과 같다는것이다. 미

국이 쓰디쓴 패배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던 여제날을 감감 잊고있던 어리석은것이고 그날의 수치를 모르고있던 회비극이 아닐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언명하신것처럼 우리 나라는 오늘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랐고 침략세력이 원자탄으로 우리 인민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조선은 그 어떤 외세의 반공화국침략책도 단호히 제압할수 있는 무진막강한 군력을 가진 불패의 보루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의 부강발전을 위한 힘을 키우는데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고, 힘이 강해야 조국도 지키고 후손대대의 행복도 담보할수 있다고 하셨다. 민족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인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는것은 그이의 신념이고 의지인 것이다. 미국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운명은 《푸에블로》호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조선은 현실로 대답하고있다. 한영진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의 문을 열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1년이 되어온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주제80(1991)년 8월 1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의 호상관계, 조국통일의 주제와 민족대단결의 기초, 민족대단결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비롯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셨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핵력을 다시 있고 민족적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면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위대한 주석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주의적력량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바른 길을 명시한 실천할수

상이다. 로작이 발표된 후 지나온 기간 위대한 주석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힘있게 과시되었다. 특히 우리 겨레의 자주적투쟁속에서 민족주의적통일에국력량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운동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작성발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 그리고그 렷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의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 조국통일위업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에 부딪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초기부터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면서 그 리행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지금도 보수당당은 동족에 대한 국도의 적대감을 고취하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을 지키지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종북》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또한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사환군이 되어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다. 특히 남조선보수당당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특대형과피압해책동까지 감행하면서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파괴하다 못해 전쟁까지 몰아올리는 후안무치한 당풍이다.

은 민족은 반동일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어느때에 가서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 평화보다 귀중

한것은 없다. 평화수호투쟁은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은 민족이 반전평화수호투쟁에 떨쳐나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압력과 전쟁연습, 무력강화책동을 단호히 짓부서버려야 한다.

전민족의 단합실현에 민족의 자주가 있고 반전평화를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분열주의세력의 반동일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반동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리재철

다음기 《정권》이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은...

최근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과 대학교수들을 비롯한 대북문제전문가들속에서는 다음기 《정권》이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방향들이 활발히 논의되고있다고 한다. 주목되는것은 우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답습되어서는 안된다고 누구나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리명박이 집권기간 남북대화와 교류를 단절시키고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해왔지만 오히려 북의 핵역력은 더욱 강화되고 내부결속만 다져졌다. 결국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있다.

그러면서 다음기 《정권》은 이에 대한 반성과 교훈에 기초하여 남북관계회복과 화해협력에로 나가야 한다고 하고있다.

특히 다음기 《정권》의 《대북정책》은 《ABL》(Anything But Lee, 리명박이 한 모든 방식을 없앤다는 뜻)이 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접근으로 해결가능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사람들은 다시한번 느꼈다. 미국과 리명박역적당당이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깨버리고 갖은 오그랑수를 쓰고있었다. 7.27이 가지는 민족사적의의는 부정될수도, 지위질수는 없지는것을.

그렇다. 친철위인을 모시어 공화국에서는 전승의 흥룡한 축도가 오늘도 타오르고있는것이다. 본시기자 김련옥

자 88%나 되었다. 이것은 《대북정책》의 전환이 어느 한두사람의 요구가 아니라라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주목되는것은 또한 《국민적합의》에 기초한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것이다.

여러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리명박 《정권》에 와서 김대중, 로무현집권시기의 《대북정책》이 모두 뒤집어지고 남북관계가 정파적리해관계에 따라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남북관계를 흔들림 없이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있게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고있다.

그러자면 진보와 보수가 한자리에 모여앉아 지난 시기 남북관계에서 이룩된 모든 합의들에 기초하여 종합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집권자의 정견과 리념, 주의 주장에 따라 《대북정책》이 좌우되지는 않을것이다.

《정경부리》의 원칙에서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주의사업에 의하면 다음기 《정권》의 《대북정책》은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기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립장을 밝힌 응답

그들은 현 《정부》 집권 4년반동안 남북사이의 정치, 군사적대결로 경제협력분야까지 동결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북남경제협력의 차단은 《대북압박의 효과》보다도 남측 기업들과 국민들의 목줄만 조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고있다. 더우기 개성공업지구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이 보여주는것처럼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 어떤 정치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는 공고한 남북경제협력체제를 갖추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다음 《정권》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철저히 정치, 군사적전문문제와 경제협력사업을 분리시켜 대응하는 《정경부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인도주의사업도 정세변화와 무관하게 중단없이 진행할수 있도록 법칙,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도처에서 울려나왔다.

이러한 견해와 주장들은 리명박 《정부》의 동족대결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초래된 북남관계파탄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남조선민심을 반영한것으로서 내외의 주목을 끌고있다. 본시기자 김철민

불과 며칠전 미국과 남조선모략기관의 임무를 받고 공화국에 기여들어 특대형과피압해책동을 감행하던 자가 적발, 체포된 소식이 세상에 공개되어 각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데 미국과 남조선피괴당이 《거사》를 단행하기로 계획하였던 바로 그 7월 27일날에 조선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축행사들이 성황리에 진행되어 또다시 세계가 벅스 끊겨 왔다.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로부터 59돌의 년를 새기는 뜻깊은 정축의날 조선에서 힘있게 울려나온 승리의 노래, 기쁨의 환호성.

이날의 광경을 보며 사람들이 느낀것은 무엇이었는가. 세상사람들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7.27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처음으로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

넣은 전승의 날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제2의 조국해방의 날이다.

외세들 등에 업고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었던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겨준 력사의 날이다.

이날과 더불어 조선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는 하늘에 닿았고 우리의 힘은 더욱 배배

전승의 축포는 오늘도

해했으며 조선의 위력 만방에 뚜렷이 과시되었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이 변하였지만 그날에 터져오른 전승의 축포는 세기를 넘어 오늘에도 끊이지 이어져 이 땅우에 자랑찬 승리의 력사만을 새겨왔다.

미제와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이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 할 때마다 조선의 힘, 조선의 본래를 보여준 《푸에블로》호나로 사건, 《EC-121》대형간첩

비행기 격추사건 등 통쾌한 승리의 력사적사실들을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준엄한 력사의 심판에서 교훈을 찾을 줄 력사의 날이다.

그리고는 이제와서 그 수치를 모면해보려고 굳이 부정하고 인위보살하고...

그렇다고 패배자의 처지가 달라질수 있겠는가.

7.27을 《거사》의 날로 정한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아마도 7.27이 저들에게 있어서 더 날이 될수 없는 쓰디쓴 참패의 날이라는것을 잊은것이나 아닌지.

조선전쟁협정이 체결된지 59년이 되는 이번 7.27에 미국에서는 미국, 남조선고위당국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정전기념식》이라는것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패배를 기념한다니 정신이 여차해진 것이나 아닌가 하여 일약 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7일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그에 손을 대려는 자들은 우리 인민의 준엄한 철추를 면치 못할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남조선피괴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다 못해 월남도주자들을 비롯한 반역자들을 침투시켜 극히 불순한 과피압해책동에 매달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얼마전 피뢰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공화국에 침투하여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던자들이 적발, 체포된 데 대해 성명은 언급하였다.

성명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공화국주민들을 유인, 략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가 반공화국모략선전에 썩게 하다 못해 악질적인 월남도주자들과 반역자들을 엄중한 과피압해책동에 내몰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피괴적대당을 치솟는 민족적분열을 안고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의 적국적인 지원밑에 피뢰정보모략기관들은 반역자들을 규합하여 각종 과피압해책동을 전문으로 하는 악질적인 반공화국세력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많은 자금과 과피압해수단까지 쥐여 주면서 주남나를과 공화국의 북부국경일대에 침투시켜 테로압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당이 조작한 이번 사건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극악무도한 특대형테로사건이고 국제법을 관조하기 위한한 중대 국가정치테로사건으로서 반공화국과피압해책동이 무분별한 지령에 이르고있는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든 중상모독행위는 오직 반민족적인 역적무리인 리명박당만이 벌릴수 있는 미친짓이며 정세를 더는 수할수 없는 막대한 지령에 몰아가는 무지막지한 강대국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신성한 체제를 헐뜯는 호전적이며 악랄한 도

민족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건드려려는 특대형국가정치테로행위를 저지른 남조선보수당당이 지금 어떻게 하나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레로범인 탈북자 전영철의 기자회견이 진행된 후 남조선당국자들은 《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느니, 《전영철이 남측정보기관원이라고 주장한 인물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느니 뉘니 하며 아닌보살하였다. 지어 《북민전》대포 김성민을 비롯한 민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모르는 사실》이니, 《전영철이 마약거래로 중국에서 체포된 후 사건을 지어냈다.》느니, 《대남도발명분쟁기》니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철면피하게 놀아내고있다.

남가죽이 두꺼워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이번 사건이 철저히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의 추악한 결탁의 산물이라는것은 범인의 자백과 여러 물질적증거자료들에 의해 날날이 폭로되었다. 전영철을 범죄행위에 끌어

진행위는 오래전부터 미제의 각본에 따라 리명박역적당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 있는 역적대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죽어 너부러질 때가 다될수록 더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미친개의 본성 그대로이다.

미국과 피괴당이 인강스레기들을 내몰아 그따위 너절한 과피압해책동을 벌려 공화국의 민심을 혼들고 일심단결에 금이 가게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처럼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그에 조공이라도 손을 대려는자들을 강그리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갈것이다.

만일 미국과 피괴당이 특대형테로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 하여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준엄한 철추를 면치 못할것이다.

본시기자

특대형 테로범들의 공색한 책임회피놀음

들인 인간쓰레기 김성민의 행적을 놓고보아도 이번 특대형테로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여실히 알수 있다. 김성민은 현재 《북민전》뿐 아니라 《자유북한방송》이라는 《대북심리전방송》의 대표까지 겸임하고있다. 지난 2004년부터 《민간방송》의 탈을 쓰고 공화국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략과 방방선전을 악랄하게 벌려온 이 《방송》이 미국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기간 공화국에 대한 베라살포와 보수단체들의 그 무슨 《규란대회》니 뉘니 하는 대결망동들은 김성민이 우두머리로 있는 《북민전》 매거리를 언제나 앞장서왔으며 그것을 배후조종하고 비호두둔해온것이 남조선당국이다.

보수당당이 몇년동안이나 그 제정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있는 《북민전법》을 두

고 남조선 각계에서 일치하게 《베라살포단체들에 합법적으로 자금을 대주려는 법》이라고 평가하고있는것은 쓰레기 평단들과 보수당국과의 관계를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기도 하다.

보수당당이 이번 사건을 두고 《탈북자단체들 스스로 소행일수 있다.》고 오도하는것도 껀변이 지나지는 않는다.

번번한 직업조차 구하지 못해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가는 인간쓰레기들이 모인 《탈북자》단체들이 저 무슨 단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특대형테로사건을 준비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또 죄를 짓고 도망치는것밖에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인간오작품들이 생활만 해봐도 팔다리가 떨리는 특대형범죄를 스스로 저지른다는것도 쥐가 교양이를 잡겠다는것보다 더 허황한 소

리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것은 전영철의 기자회견이후 김성민이 전영철을 이미전제에 알렸고있으며 이번 범죄행위의 행동대인 《동까모》가 존재한다는것을 인정한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의 최종승인과 지휘밑에 남조선보수당국이 조작한 특대형국가정치테로사건의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제편에서 필적 뒤엎었지만 바로 그 《민주국가》에서 지금까지 일어나 많은 테로사건들이 일어났는가.

미국의 사족을 받은 주구들에 의해 리운형, 김구신생을 비롯한 명망들은 애국지사들이 흉탄에 맞아 쓰러지고 야당인사가 외국에서 략치되어 바다물속에 수장될만한 곳이 과연 어디인가. 지

우리는 이미 악한것만 끌라가면서 하는 리명박역적당에게 여러번 경고하였다.

그들이 지난 시기 《인공기표적사건》, 《구호 또는 현수막사건》, 《최고존엄표적사건》에 이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반인륜적행위를 감행하였으니 올해에는 소년단원들의 행사를 놓고 이 리명박역적당

인을 늘어놓아 공화국의 천만군민을 분노케 하였다. 그리고도 모자라 리명박당은 미국과 작당하여 이번에도 또다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가장 신성한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는 특대형모략을 꾸미었으니 이자들이야말로 정말 악한것만 끌라가는 악당들의 악당들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사망의 주인의 계명을 실천해나갈 대신 동족대결을 추구하고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을 해칠 궁리만 하고있으니 이러한 자들과 어떻게 주님안에서 함께 살수 있겠는가.

그리고도 눈만 뜨면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잠꼬대하

듯 중얼거리고있으니 과연 리명박당당이 꿈꾸는 통일이 어떤것인지 그 불순한 의도를 알만 하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언론들까지 《MB》가 통일을 위해 뭘 했다고 통일에 대해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도적심보라고 야유하였는가. 언론들은 북과의 대화는 한번도 나누지 않고 갈등과 대결만을 일삼으면서 조

선반도정세를 언제 무력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지경으로까지 만든 리명박에게 통일이 가까이 온것이 아니라 《MB》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있다.

어리석은자는 절구에 찜어도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아마 죄를 짓고도 당장 벌을 받지 않으니 나쁜

것을 할 생각밖에 없는 모양이다. 역적대당이 저들의 반국가정치테로행위에 대해 《일방적인 비방선전》이니, 《있을수 없는 일》이니 하고있지만 력사와 현실은 《종말》을 앞둔 사탄의 무리들이 할것이란 그런 비렬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어

본시기자

나쁜것만 끌라가면서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자에게 차려질것이란 오직 죽음뿐이다.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자기의 최고존엄을 어찌보려서든 독사무리들에 대한 북수와 징벌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징벌의 도끼는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다.

독사무리들이 피할 자리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는 독사의 무리들을 모조리 찍어 불속에 던져넣음으로써 사랑과 정의, 평화와 일치의 주님의 뜻을 실천해나가야 할것이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목사 송철민



미국과 남조선역적당에 대한 지솟는 분노로 가슴불태우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해 금 강 의 어 림 본사기자 동창현 찍음

발음으로 본 우리 말의 우수성

말소리가 아름답고 발음이 풍부한 것은 우리 말의 우수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우리 말 발음의 우수성은 우선 그 풍부성에 있다. 우리 말은 발음이 풍부하여 그 어떤 힘들고 까다로운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우리 말 발음의 풍부성은 우리 말에서 리용되는 소리마디의 수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소리마디는 말소리들이 실현되는 가장 작은 발음단위이다. 해당 언어의 언어음리용정도는 그 언어에 쓰이는 소리마디의 수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말에는 첫 소리자를 18개와 모음 21개, 끝소리자를 7개의 조합으로 얻어지는 3192개의 소리마디가 쓰일 수 있다. 우리 말의 소리마디가 이렇게 풍부하게 갖추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말의 말소리구성이 조화롭고 체계성있게 구비되어있고 관련된다.

우리 말의 말소리구성은 자음 19개와 모음 21개 모두 40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음과 모음의 비율이 거의 1:1에 가깝고 또 여기에 끝소리자를 충분히 리용할 수 있다는 우리 말 소리마디가 풍부해지게 된 주요한 조건이 있다.

제인 말소리구성과 풍부한

소리마디구성은 우리 말의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 사물현상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력이 뛰어난 언어로 되게 하는 어음론적조건으로 된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있는 우리 말의 본말 발음은 우리 말 발음의 체계성과 풍부성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말 발음에서는 인간이 낼 수 있는 다양한 말소리들이 비교적 원만히 실현되고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말 발음을 배우면 그 어떤 나라의 말인지 마음대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우리 말은 류창하며 높고 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다.

우리 말의 발음이 류창하고 듣기에도 아름다운 것은 발음실현에서 말소리변화를 비롯한 말소리실현규칙들이 제이게 작용하여 말소리흐름이 유순하고 류창하게 이루어지며 높고낮음, 길고짧음과 같은 음운적요소들이 언어적특성에 맞게 세련되게 리용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소리흐름속에 열린 소리마디가 많으면 발음이 류창하게 들리는 우리 말 발음실현에서 열린 소리마디가 분포되는 비율은 65%정도로서 높다.

우리 말은 또한 발음이 독특함이 특징이다. 우리 말에서는 모음을 중심으로 하여 자음들이 모여 소리마디를 이루는 원리에 따라 모든 말소리들이 언제나 정확하게 실현되며 단어나 문자의 발음에서 말뜻을 정확히 나타내게 하는 여러가지 발음규칙들이 제이게 작용한다. 하여 유럽의 언어들에서처럼 소리마디의 발음이 모호하게 실현되는 것과 같은 일이 없이 발음이 항상 독특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우리 말과 글은 발음이 풍부하고 아름다울뿐 아니라 그것을 훌륭히 표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를 갖추고있는 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로 이름떨치고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박사 리승길

조선속담 부분별

- 굶우물에 들버기, 굶우물에 돌을 넣어 매꾼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을 감히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 ※ 굶우물-매우 깊은 우물.
- 바위자면 제 발부리만 아프다.
- 필요없는 분골이를 해아 손해볼 것은 자기뿐이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선달 그림날 시루 얻으려 다니기.
- 어느 집이나 다 시루를 쓰려는 선달 그림날에 시루를 얻으려 다니는 뜻으로 되지

역사유적

관음사

개성시 박연리의 유명한 관음사 대웅전의 꽃문조각은 우리 나라 꽃문조각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것으로 이름났다.

특히 뒤뜰쪽에 새긴 뿔어 새김무늬조각은 꽃병에 띠 꽃을 꽂은것을 형상하였는데 그중 한쪽문은 미완성품이다.

전설에 의하면 뛰어난 조각술을 가진 《운나》라는 유명한 목공소년이 꽃문조각을 맡았는데 그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받고도 보내지 않아 어머니의 림종을 지켜드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소년은 울면서 자기의 손재간때문이라고 손을 잘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다. 그리하여 문의 한쪽문은 완성되지 못하여로 남아 있다고 한다.

관음사는 오늘 잘 보존관리되어있으며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 옛 건물의 특징을 잘 갖추고있는 관음사는 구조상 균형이 잘 제인 우수한 건축유산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일본의 도자기문화에 큰 영향을 준 심수관

바로 일본 도자기문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조선사람들이며 그중에서도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였다고 한다.

심수관은 본래 1597년 임진조국전쟁때 조선의 도자기기술을 탐낸 왜놈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심달길의 12대후손으로서 1873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2m 크기의 도자기인 《금수대화병》을 내놓아 유럽인들의 찬사를 받으면서부터 유명해졌다고 한다. 그때부터 심달길의 후손들은 자기의 고유한 이름들이 있지만 자기 이름대신 《심수관》이라는 가문의 세습명을 쓰고 있는데 이 후손들중에서는 14대후손이 유명하여 그가 만든 도자기는 일본전역에 많이 퍼졌다고 한다.

심수관의 가문은 대를 이어오면서 조선속담도 들과만 결흔했다고 한다. 심달길이 임진조국전쟁때 일본 가고시마에 끌려간 것으로 하여 지금도 가고시마에는 그때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있으며 오늘날까지 《고려정》이라는 거리표식이 남아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민족음식판들기

관고기감자출림

음식김(2명분)
단고기 400g, 감자 100g, 파 20g, 생강즙 5g, 마늘 5g, 간장 10g, 고추장 5g, 닭은 찹게 5g, 싸국물 20g, 소금 5g, 후추가루 1g, 참기름 3g, 맛내기 3g

① 단고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3cm씩 썰어 파는 다듬어 2cm정도 되게 토막낸다. 마늘은 다진다.

② 단고기에 생강즙, 파토 막, 다진 마늘, 참기름 절반, 간장 절반, 소금, 후추가루 절반을 두고 양념주머니에 넣어 30분정도 재운다. 감자는 껍질을 벗겨 굵곡모양으로 썬다.

③ 냄비에 감자를 깔고 양념에 재운 단고기를 놓은 다음 싸국물을 두고 3시간정도 쪄낸다. 다음 나머지 참기름, 간장, 후추가루를 두고 약한 불에서 단고기가 만만해질 때까지 서서히 쪄낸다.

④ 단고기감자출림을 접시에 담고 닭은 참깨를 뿌려 더울 때 낸다.

본사기자

기러기 (6)

그가 이렇게 속대사를 하고있는 사이에 김향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로인님, 절 용서하세요. 제가 바로 이 김우성이란 사람의 딸이에요.》

《아네, 알아. 그래서 입을 여기에 데려온것이 아닌가?》

그날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기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리고 수십년세월 서로 찾아가지도, 오지도 않았던 리유에 대해서... 아마도 김향순이 그 그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하는 편히 하면서도 왜 그런지 다 털어놓고 말을 해야 마음이 가벼워질것 같아 정윤기는 오래도록 곱씹고 또 곱씹었다.

4

보라매병원 의사 리경운의 전화를 받은 김향순은 오후

글 김승기, 그림 김윤일

시간에 계획된 일도 뒤로 미루고 서둘러 역전으로 향했다. 정윤기의 1인시위는 오늘도 계속되고있었다. 참으로 초보처럼 심신을 태우는 애국의 장자이다. 그의 건강이 나날이 악화되는데 대하여 누구보다 걱정하는 김향순이었다. 리경운은 정윤기의 병이 심상치 않으니 실험 검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진을 받게것이 좋겠다고 여러번 말해왔었다.

《정윤기 로인님이 오늘 불편한 몸으로 철차시위에 오른다는것을 알고있습니까?》

《선생님이... 요즘 병상에 계셨는데...》

《조금전에 나한테 왔습습니다. 역으로 나가는 길이라면서 필요한 구급약을 달라기에 주었습니다만 걱정스럽군요.》

역앞에 이른 김향순은 곧장 대합실로 향했다. 정윤

《선생님, 향순이에요. 어디 불편하신가보지요?》

《여기 어떻게?》

《경운선생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고마운 사람들이야. 임자들이 난 정말 고마워.》

《그런 말씀마시고 저와 함께 병원으로 가십시오. 오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난 김향순은 역사관에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봄비는 속을 헤치고 공원근처에 이르러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길이 한곳에 가 있었다. 정윤기는 공원의 자태가 매우 불편한 형편에 이 몸을 내린 김향순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눈을 감고 앉아있는 정윤기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릿한 기운까지 떠돌았다. 검버섯이 돌고 로인반점이 얼룩진 이마와 볼은 이따금 경련을 일으켰다. 몇해전 경찰의 끈봉에 맞아 허리를 다쳤을 때보다 더 아파하는 모습이어서 김향순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꿈에 조심히 올려놓았다.

《선생님,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열려...》

정윤기는 고개만 끄덕거렸다.

그는 온몸을 엄습한 참기 어려운 동통속에서 그 무엇

인가를 생각하려고 애썼다. 정신력과 아픔의 싸움이였다. 의지가 지면 의식은 육체적고통에서 산생되는 공포밖에 느끼지 못한다. 이겨내야 병마가 부서져나간다. 벌거벗은 고문명수들도, 정윤기도 두눈을 부릅뜨고 마주 고향을 질러낸다.

《내 생명의 번호다!》

《뭐? 생명? 네놈한테 생명이 없잖아?》

《있다! 조선로동당이 생명이야!》

《뻔뻔한 놈이... 바다에 떨어지는 아저씨... 소리... 야수같은 교형리들이 지쳐서 헐떡거린다. 정윤기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구름이 두워서 어디론가 등등 떠가는 쾌감을 맛본다. 내가 이겼다! 의식이 몽롱해지는 속에서도 그는 이 말 한마디만은 불듣고 있었다...》

《로인님, 몸이 아릅니까?》

정윤기는 자기앞에 선 김향순과 리경운을 보며 조용히 일어났다.

《있었다. 나이드니 시름시름 앓는게지...》

《감시다. 오늘은 제가 하자는대로 하십시오.》

정윤기는 그들의 요구를 고분고분 따랐다. 실험검사로부터 종합검진을 받기까지 반나절이 걸렸다.

《선생님, 입원해야겠습니까?》

정윤기가 쓸쓸히 웃었다.

《병이 중한가?》

《아닙니다.》

리경운은 정윤기를 입원실로 안내했다.

《여기가 제일 조용한 곳입니다. 수속을 끝내고 필요한 사품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오겠어요.》

김향순은 정윤기에게 환자복을 갈아입히며 말했다. 그때 잠시 밖으로 나갔던 리경운이 다시 들어섰다.

《로인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의사선생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졌소. 이 늙은게 언제 갚을지 그게 걱정이요.》

《그저 병만 다 나오십시오. 제가 오히려 신세갚으렵니다.》

《허 참, 고마우이.》

리경운이 김향순을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용조용 묻고 대답하는품이 여간 긴장한 목소리가 아니다. 의사의 손에는 여러장의 필름이 들려있었다. 한시간가량 지나서야 김향순이 돌아왔다.

